

쉬운 수능에...주요대학 합격선 1~2점 상승 예상

입시업계, 광주 등 지방권 의대 276점 이상으로 합격선 3점 ↑ 전망 까다로운 선택과목서 당락 갈릴 가능성...최상위권 눈치 경쟁 치열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전년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원점수 기준 주요 대학 합격선이 1~2점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입시업계는 가채점 결과 국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수학과 수험생들이 고전한 탐구영역에서 대입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배출돼 정시에서 눈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과목이 복병=수험생 40.8%가 이번 수능을 '약간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지난 14일 수능 종료 후 EBS 고교강의 사이트(ebis.co.kr)를 통해 제각년도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3085명 가운데 40.8%는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약간 어려웠다'고 답했다.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26.0%였다.

국어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30.8%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수학 영역에서는 36.1%가 '보통이었다', 영어 영역에서는 33.8%가 '보통이었다'로 응답했다.

반면,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가장 많은 57.3%가 '매우 어려웠다'고 꼽았고,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45.5%가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원점수 합격선 상승=입시학원가에서는 국어, 수학과 작년보다 쉽게 출제돼 인문·자연계열 모두 원점수 합격선이 상승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원점수 기준 정시 합격선을 서울대 경영 285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 각 279점으로 예측했다. 작년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울대 경영은 1점, 연세대·고려대 경영은 2점씩 올랐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작년보다 5점 상승한 204점으로 예측했다.

서울권 의대는 285점 이상(전년 283점 이상), 광주와 전북 등 지방권 의대는 276점 이상(전년 273점 이상)으로 최대 3점 정도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국어, 수학과 쉽게 출제돼 원점수 합격선 상승의 요인이 됐다"면서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은 어렵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급컷도 상승했다. 국어 1등급 컷라인은 '언어와 매체' 선택 수험생의 경우 EBS는 90점, 이투스과 메가스터디 각 91~92점, 종로학원 92점으로 추정됐다.

'화법과 작문'은 EBSi 92점, 이투스과 메가스터디 각 93~94점, 종로학원 94점 이상이어야 1등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에선 EBSi 92점, 이투스 95점, 메가스터디 91~92점, 종로학원 94점이 1등급 컷라인으로 분석됐다.

'미적분'은 EBSi 85점, 이투스 88점, 메가스터디 84~85점, 종로학원 87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하'는 EBSi 88점, 이투스 89점, 메가스터디 90~91점, 종로학원 94점에서 1·2등급이 나누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권 경쟁 치열=수능이 다소 쉬워져 상위권 경쟁은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어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영역이 쥐고 있다고 입시업계는 관측했다.

사회·과학탐구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의 약한 변별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광주대성학원 이용희 진학부장은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원점수는 올라가고 표준점수는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정시에서는 수험점수가 좋아야 하고 선택과목에서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정시에서 수험생들의 눈치작전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광주의 한 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수능 가채점 결과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수험생은 정확한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시와 수시모집 중 어디에 집중할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양서 4t 코일에 깔려 작업자 사망

혼자 작업하다 참변

광양에서 철재 코일에 깔린 40대 작업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청 등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자 A(40)씨가 4t 짜리 철 코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하루 뒤인 9일 숨졌다.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겨 성형 기계에 장착하는

일을 하던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을 운반하던 중 운반 장치에 연결된 쇠고랑을 다시 장착하는 과정에서 코일이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안전관리책임자, 작업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교육협치한미당 북적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16일 열린 '2024 광주 교육 협치 한미당' 행사에 참여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실화해위 규명 결정에도 입증요건 안되면 불인정"

영광 유족 6명 손해소송 기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더라도 유족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김혜선)은 군경에 의한 영광군 민간인 희생자 A씨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화위는 'A씨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1월 9일 영광 흥농면 신석리 신대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돼 집 앞 논둑에서 희생됐다'고 판단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와 며느리, 손자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화위가 인정한 유족들의 진술이 직접보고 취

인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신고 등 기록 불일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씨의 사망신고는 1971년 3월 1일 접수됐고, 신고 당시 1953년 5월 8일 숨진 것으로 기록됐다. A씨 배우자는 1961년 10월 27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들을 1951년 6월 출생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진화위에서 A씨의 희생경위에 대한 증거는 며느리와 손자, 참고인 B씨의 진술이 전부"라면서 "며느리와 손자는 당시 출생하지 않아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았으며, 이미 숨진 A씨 자녀와 형제들에게 들었을 뿐이고 이들도 당시 직접 목격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으로 진술한 B씨도 당시 7세에 불과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 동네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했을 뿐"이라면서 "또 2015년 작성된 영광군 자체 조사결과서에 기록된 B씨의진술과 진화위에서의 진술이 모순된 점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관행적 일탈 사유로 복지법인 시설장 해임은 부당"

광주교법 항소심 판결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법령과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설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교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전남의 한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의 B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법인 설립자의 손자이자 2대 이사장의 아들인 B씨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일했다.

B씨는 고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21년 11월 물품반출, 명령불복과 근무태만, 직원 명예훼손과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전 이사장)에게 구내식당 식사 제공, 영양사에게 도시락을 배달시

킨 행위, 법인차량 사적사용 등의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비위는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되던 법인에서 구성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서 "그렇면 관행을 전부 B씨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는 것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